

클로이 김 vs 최가온 관전포인트 '1위'

미국 야후 스포츠 2026 동계올림픽 10대 스토리 소개
美 교포 클로이 김 '스노보드 3연패' 최초 달성 주목
현역 복귀 41세 린지 본, 알파인스키 최고령 금 도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릴 것인가.

미국 야후 스포츠는 27일 올해 동계올림픽의 10대 스토리 라인을 소개하며 이번 대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이 매체가 가장 먼저 지목한 것은 교포 선수 클로이 김(미국)의 올림픽 3연패 달성 여부다.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에서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을 따낸 클로이 김은 이번 대회에서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스노보드 종목에서는 아직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을 따낸 선수가 나오지 않았다.

미국 야후 스포츠는 “클로이 김은 미국 대표팀 최고 스타 중 한 명”이라며 “이달 초 어깨 부상으로 올림픽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나 미국 대표팀과 (미국 내 중계권사인) NBC로서는 천만다행으로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 매체가 최가온(세화여고)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클로이 김 3연패 달성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는 바로 최가온이다.

2025-2026시즌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세 번이나 우승하며 클로이 김의 몸 상태가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우승을 장담하기 어려운 정도의 존재감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41세 린지 본(미국)의 금메달 도전이 두 번째 스토리로 뽑혔다.

2018년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에 다시 올림픽 무대에 도전하는 본은 2019년 은퇴했다가 2024-2025시즌

현역에 복귀했다. 무릎 수술을 받은 본이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동계올림픽 알파인 최고령 메달리스트가 된다. 본은 2025-2026시즌 월드컵 활강에서 두 번 우승했고, 자신의 월드컵 84승 중 12승을 코르티나담페초에서 따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2014년 소치 대회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서는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선수들, 네 번째는 러시아 선수들의 ‘개인중립선수’(AIN) 자격으로 출전이 주목됐다.

이어 미케일라 시프린(미국)의 명예 회복과 미국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금메달 도전이 장식됐다.

시프린은 FIS 알파인 월드컵 108승으로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으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노메달에 그쳤다.

미국 피겨 스케이팅은 올림픽 여자 싱글에서 2002년 새라 휴스 이후 금메달이 없다. 메달도 2006년 사샤 코언의 은메달이 마지막이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었던 구아이링(중국)의 대회 3관왕 도전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요소다.

이어 1924년 이후 102년 만에 스키 점프 메달에 도전하는 미국, 새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산악 스키 등이 주목받고 있다.



왼쪽부터 윤준상, 이예주, 황석봉, 변동엽, 송정미.

대한수영연맹 2025년도 부문별 수상자 선정 다이빙 이예주·오픈워터 스위밍 윤준상 '우수' 변동엽 공로상·신동호 지도자상·송정미 심판상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수영 다이빙 4관왕에 오른 이예주(남녕고3)가 대한수영연맹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대한수영연맹(회장 정창훈)은 26일 오전 올림픽회관 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예주 등 지난해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선수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우수선수상을 받은 이예주는 지난해 10월 제106회 부산전국체전 여자 18세 이하부 1m스프링 보드를 비롯해 3m스프링보드, 플랫폼, 3m싱크로에서 4개의 금메달과 플랫폼싱크로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며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이예주의 4관왕은 지난 2015년 강원체전 당시 체조 허선미 이후 10년만의 쾌거로 기록됐다. 중

학교때부터 다이빙에서 실력을 뽐낸 이예주는 ‘2025 국가대표 선발대회’ 수영 다이빙 3m스프링보드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바 있다.

이와함께 2026년 오픈워터 스위밍 국가대표로 지난해 호주오픈에서 2위에 오른 윤준상(서귀포시청)도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이밖에도 대한수영연맹부회장을 맡고 있는 변동엽 제주자치도수영연맹 고문이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수영 홍보 등 수영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고 2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한 신동호 서귀포시청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이 지도자상, 송정미 제주자치도수영연맹 이사(대한수영연맹 다이빙심판)는 심판상, 서귀포시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황석봉 제주자치도체육회 과장이 감사패를 각각 수상했다.

아라초 소프트테니스 새해 출발 '쾌조' 유소년 전국대회 단·복식·단체전 3위 입상

지난해 전국을 제패한 양성우의 공백(중학교 진학)에도 아라초 소프트테니스가 연초부터 동메달 4개를 따내며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소프트테니스협회에 따르면 아라초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제67회 유소년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단체전에서 동메달 2개, 5학년 이하 개인복식에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개인단식에서 이덕주(아라초5)는 1회전부터 김주호(고흥동초)와 유주영(홍성초), 최명국(대덕초)을 완파하고 준결승에 올랐지만 우승을 차지한 이신언(울산 백양초)에 패하며 3위에 머물렀다.

개인복식에 출전한 변성환(아라초5)·이덕주 조는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후 8강전에서 이윤호·공하원(신화초)조를 세트 스코어 4대 2로 눌렀지만 준결승에서 우승



을 차지한 권서진·김상규(점촌 중앙초)에게 1대 4로 패해 동메달을 목에 거는데 만족해야 했다.

단체전에서 아라초는 변성환 이덕주 신지환 김진우 윤현우 박찬이

가 A팀으로, 조하준 김진우 서태민 김세호가 B팀으로 출전, 각각 4강에서 점촌 중앙초와 울산 백양초에 1대 2, 0대 2로 패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손흥민·이강인·김민재 '2025 AFC 올해의 팀' 선정

손흥민(LAFC)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정한 2025년 아시아 축구선수 베스트11로 뽑혔다.

IFFHS는 27일(한국시간)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포함한 '2025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남자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IFFHS는 세계 베스트11 격인 '월드 팀' 뿐만 아니라 대륙별로도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로 올해의 팀을 꾸려 공개하고

있다. '2025년 AFC 남자팀'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뽑혔다.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에 자리했다. 또 이강인은 왼쪽 미드필더, 김민재는 수비수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2020년부터 6년 연속 AFC 올해의 팀에 선정됐다. 김민재는 4년 연속, 이강인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아시아 베스트11로 우뚝 섰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가장 많은 5명을 배출했다.

제주의 맛, 그대로.
손끝의 정성, 그대로

제주의 바다와 들에서 얻은 재료,
그리고 제주웰링의 정성 어린 손맛.
몸이 편하고 마음이 쉬어가는 한 끼,
그게 바로 제주웰링입니다.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 72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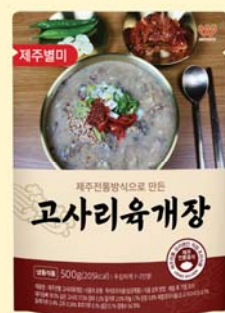
깊고 맑은 제주의 맛이 스며드는 한 끼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신한에코 | 제주 전통방식으로 직접 조리한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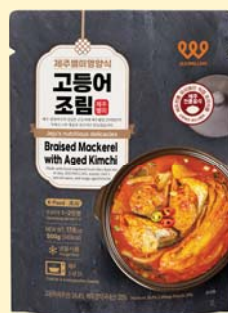
따뜻하게 데워 간편하게 집밥의 맛을 느껴보세요



제주묵국



고사리 육개장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성계전복미역국



제주갈치순살비빔장



전복순살비빔장



소라순살비빔장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기존 식당 메뉴에 추가를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
행사, 도시락, 단체급식 등에 추천드립니다.